

■ 내신 올리기 - 서술·논술형 문제 대비 이렇게

언어 영역 문법 지키고 표현은 논리정연하게

비중이 더욱 강화된 내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주요 사립대들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기로 하면서 내신이 논술과 함께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가 되고 있다.

■ 수리 영역

정확한 용어·기호 사용토록

■ 외국어 영역

문장 재구성 연습 꾸준히

◇언어영역 = 글을 읽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평소 꾸준히 독서를 하고, 글을 읽고 난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논리에 맞게 표현하도록 연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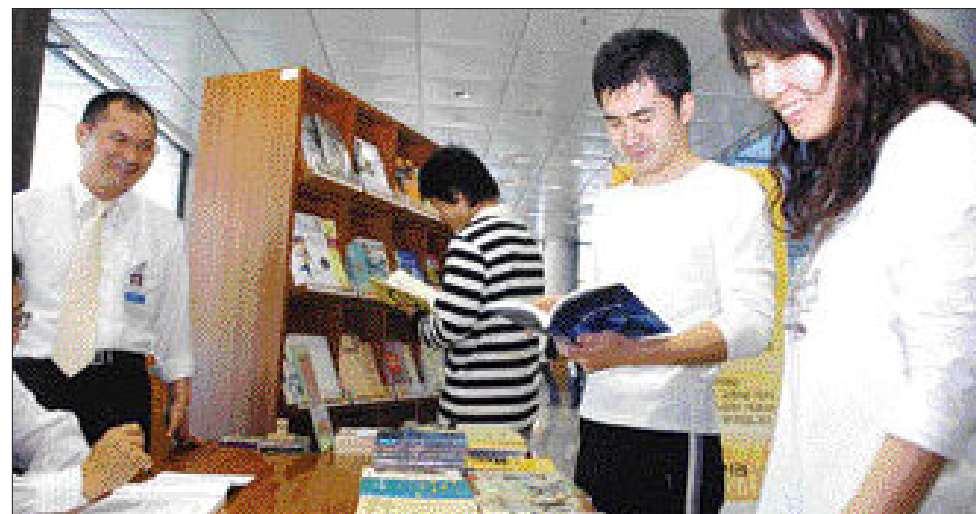
◇수리영역 = 출제되는 문항 대부분이 수학의 일반적인 원리나 공식의 증명 과정이므로 기본적인 핵심 개념과 원리를 익힌 후 조건에 따라 단계별로 서술해 나가도록 한다.

계산 능력을 갖추고, 수학의 용어와 기호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요소별·단계별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이거나 풀다가 막힐 경우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아는 데까지 풀어나가야 한다.

◇외국어영역 =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글의 주제와 단락별 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어휘와 문법 공부에 신경을 쓰고 영작 연습을 하도록 한다.

◇사회탐구영역 = 단원마다 나오는 주요 개념과 원리를 정리한다. 용어·지도·자료들을 숙지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남과 원리를 정리한다. 용어·지도·자료들을 숙지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시사 상 있는 문항들도 다수 출제되므로 평소 신문을 보는 습관을 가져도록 한다.



독서의 계절... 책 나눠 읽으세요

모다는 자신이 배운 학습 내용이 어떻게 시사 문제와 연계가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읽는다. 중요 사건이나 자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한다.

◇과학탐구영역 = 질문의 요지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실험과 관련된 절차 등을 서술하는 문제가 많은 만큼 실험 및 여러 현상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캠퍼스 소식

나이팅게일 선서식

동강대학(학장 이주석) 간호과는 지난 25일 본관 5층 대회의장에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다.



간호와 1학년 131명은 이날 초콜릿을 통해 간호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나이팅게일 선서문에 서약했다.

사우스 베일로대와 결연

호남대(총장 이현철)가 미국 최초 한의대인 사우스 베일로 대학과 '자매결연 및 4+2 학점교류 협약'을 맺고 양교간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호남대 한의재산업학과에 입학해 4학년 과정을 모두 마친 학생이 사우스 베일로 대학에서 2년간 추가로 수학하면 미국 한의학 석·박사 및 한의사 시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대학 측은 이 과정을 이용할 경우, 국내 다른 대학에서 4년을 마치고 사우스 베일로 대학 석사과정 4년을 거쳐야 하는 것에 비해 수업기간 2년, 학비 40%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8년 의료계방을 앞두고 한·미 양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우스 베일로 대학은 지난 1977년 미국 최초로 설립된 침구

및 한의학 대학으로, 올 상반기 미국 내 한의대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서부지역 최고 권위의 인가 기구인 '서부 대학교 연합인가위원회'(WASC) 회원으로 가입해 UCLA, 스탠퍼드대 등과 학점 교류를 하고 있다.

여고생 연구캠프 개원

조선대 WISE광주·전남지역센터(센터장 김선아)가 28일 오전 10시 자연과학대학 5층 세미나실에서 WISE여고생 연구캠프 제3기 개원식을 가졌다.

여고생 연구캠프는 여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고 이공계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3기에는 세종고·상무고·광주과학고·경신여고 등 4개 고교 1~2학년 여학생 20명이 참여하며,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조선대 실험실에서 실험 실습을 한다.

나주시와 협력단 운영

동신대(총장 정기인)는 최근 나주시(시장 김정훈)와 지역협력단 운영 협정을 체결했다.

동신대와 나주시는 앞으로 광



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 행복마을조성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현안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양 기관의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취임 1년

“영어타운 등 영어교육 활성화 주력”

지난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은 재선 경험을 살려 '실력 전남'의 토대 위에 '글로벌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재육성' 등 전남교육의 재도약을 위한 시책들을 마련하고 변화를 주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역별 영어타운 운영, 우수 원어민 초빙 활용 등을 통한 영어교육 확산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12개 지역에 배치된 영어타운 운영은 영어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 학생들을 핵심대상으로 한 점과 유류교실을 활용한 점 등에서 가장 돋보이는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교실의 독서운동 추진, 기초학력과 교과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초학력책임제'와 '교실 수업 개선'을 통해 학력신장에다가 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창의성 개발 차원에서 독서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학교운영비의 4% 이상을 장서구입비로 배정토록 학교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독서활동을 정착시켰다.

김 교육감은 또 올 초 '직업교육체계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을 추진해 2010년까지 특성화 고교를 15개교, 학교기업 4개교로 확대



추진하는 등 실질교육 특성화와 경쟁력 제고에도 힘써왔다.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사업'은 28개의 지역 중심고 육성에 농어촌 우수교를 17개교로 확대 지정, 이들 학교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교육감은 '연계와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 활성화'를 통해 '교육이 곧 지역의 미래'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이에따라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를 서술, 경기에 이어 가장 많이 지원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밖에 올 2월 '전남교육발전기획단'을 구성,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인 '전남교육 비전 2010'을 마련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교육감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1년이었으며 남은 일기동안 세계와 미래를 시야에 넣고 전남교육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장만채 순천대 제5대 총장 취임

“광양만권 싱크 탱크 역할 적극 추진”

장만채(48) 순천대 제5대 총장이 지난 24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장 총장은 광주제일고·서유대 출신으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학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순천대 교수로 임용된 지 20년 만에 총장 자리에 올랐다.

장 총장은 취임 직후 '순천대에서 미래를, 광양만에서 세계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취업 중심 실용교육 ▲전국 최고 수준의 특성화된 연구 ▲지역을 살리고 대학이 사는 산학협력 등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캐치프레이즈를 내놓았는데, ▲광양만권의 발전 없이는 순천대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한다. 광양만권의 중추 싱크 탱크, 지역 성장의 엔진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와 산학협력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교위위와 객관적 우수 연구 역량을 갖춘 분야를 특성과 분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장 총장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1년이었으며 남은 일기동안 세계와 미래를 시야에 넣고 전남교육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1년이었으며 남은 일기동안 세계와 미래를 시야에 넣고 전남교육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안 되든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들의 명운이 갈릴 것이다. 자생 능력을 갖추게 되면 법안화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국립 대학에 흡수 통합되거나 소멸하게 될 것이다. 재임 중 법안화에 대비해 자생 능력을 확보하겠다.

장 총장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1년이었으며 남은 일기동안 세계와 미래를 시야에 넣고 전남교육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장 총장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1년이었으며 남은 일기동안 세계와 미래를 시야에 넣고 전남교육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생활안내

Table with columns for '고등안내' (Senior High School Guide) and '신고' (New Schools), listing various school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Daedong Sangil Real Estate)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유성공인중개사' (Yuseong Certified Real Estate Agent)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인애공인중개사' (Inaeg Certified Real Estate Agent)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동부부동산건설(주)' (Dongbu Real Estate Construction Co.)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하이링크 건설' (Hi-Link Construction)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방방곡곡부동산건설(주)' (Bangbanggok Real Estate Construction Co.)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